

# 박완서 소설에서 나타나는 ‘중(中)’의 의미 연구

—공간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 아 름\*

## 요약

이 글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박완서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중산층’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아』는 자전적 소설이지만 동시에 ‘1930~50년대의 풍속을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본고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바탕으로 ‘박적골’과 ‘현저동’을 시대적 상황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공간 체험이 작가의 ‘중’에 대한 의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립적 공간 서술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의 의미를 ‘수평적 중’(중심)과 ‘수직적 중’(중간)으로 구분하였고, 박적골은 평등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현저동은 소외와 차별의 공간으로 형상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공간 체험은 ‘나’의 ‘경제감(sense of economic)’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후 한국전쟁의 체험과 더불어 ‘중’에 대한 이중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수평적 경제 공동체로 형상화되는 박적골은 그릇된 자본주의에 대한 작가의 대안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적골, 현저동, 개성(開城), 서울, 중(中), 중산층, 평등, 소외, 수평적 경제 공동체, 차별, 한국전쟁, 이중의식, 자본주의

\* 신안산대학교 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중中'의 이중적 의미: 중간中間과 중심中心
3. 수평적 경제 공동체로서의 박적골
4. 수직적 경제감 형성으로서의 현저동
5. 나가며

## 1. 들어가며

‘한국전쟁’과 더불어 ‘중산층’과 ‘자본주의’, ‘돈’의 문제는 박완서의 소설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큰 틀로 자리잡아 왔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자본주의와 여성의 현실’<sup>1)</sup>과 “자본의 힘이란 곧 가부장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었다”<sup>2)</sup>고 하거나 『미망』은 ‘체대로 쓰는 돈,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써보고 싶었다’<sup>3)</sup>고 창작 의도를 밝히는 등, 박완서는 돈과 자본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 왔다. 또한 산문을 통해서도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작가에 의해서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곧 모티프와 주제가 될 수 있으며<sup>4)</sup>, 박완서의 작품 속에서 ‘중산층’이 반복되어왔다는 것은 곧 작가

1)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작가의 말, 세계사, 2012. (2000년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된 아주 오래된 농담 초판 작가 후기)

2) 박완서는 최재봉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령, 얼마 전에 새로 낸 장편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도 저는 자본의 힘이란 곧 가부장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재봉, 『작가 인터뷰』,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4면.

3) 최재봉 기자와의 같은 인터뷰에서 박완서는 “『미망』에서 저는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에 대해 써보고 싶었습니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 돈을 버는 데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천격스럽게는 쓰지 않는다는 태도 같은 것 말이죠.” 라며 『미망』의 창작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위의 책, 39면.

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중산층으로 묘사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시공간과 텍스트의 구성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매그리올라는 “저자의 ‘주관적인 삶-세계’는 텍스트로 전환되는 저자 자신의 관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자는 ‘의미’나 ‘주관적인 삶-세계’를 텍스트의 의미(객관적인 의미)로 읽어낼 수도 있다”<sup>5)</sup>고 언급한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 스스로 ‘유년의 자화상’이라고 언급하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전제로 하는 자전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중산층’은 이미 지적된 바 있듯<sup>7)</sup> 유동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이다.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그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개념은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4) 테마와 모티프의 반복에 대해서는 H.포터 애벗, 『서사학강의』 (우찬체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186-190면 참조.

5) Robert Magliola, *Phenomenology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West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Press, 1977, p.9. 휴.지.실버만, 윤호병 옮김, 『텍스트성·철학·예술: 해석학과 해석주의 사이』, 소명출판, 148면 재인용.

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그 산은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는 작가에 의해 직접 자전적 소설로 거론된 작품들이다. 본고에서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나의 정체감각이나 의식에 주목한다. 단편 『엄마의 말뚝 1』이나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에서도 박적골에서 현저동으로의 이동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작가에게 있어 개성의 박적골에서 서울의 현저동으로의 공간 이동과 변화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간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싱아』를 중심으로하여 다른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7) 오자은은 박완서 소설의 중산층의 정체성을 밝히는 논의에서 중산층의 특성을 ‘애매함과 비어있음’으로 파악하고, 중산층의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핀다.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오자은의 논문은 박완서 소설 속의 모호한 ‘중산층’의 이미지에 접근하는 데 많은 참조점을 주었다. 본고는 이러한 중산층 의식의 형성을 작가의 공간체험과 공간 형상화 방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치를 파악하는 주체의 '자기(위치) 의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고는 박완서 소설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박적골'과 '현저동'의 공간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피고 이를 통해 '중<sup>中</sup>'이라는 위치에 대한 작가의 의식, 감각<sup>9)</sup> 등을 추적하고자 한다. "거주 공간의 지표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분할을 넘어 인격화를 수행"<sup>10)</sup>하기 때문에, 두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박완서 소설세계에서의 '중산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中中의 이중적 의미: 中間(中間)과 中心(中心)

① 건전한 가장이 착실한 직장에서 불안 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저 살 만한데, 그 살만한 정도가 아이들을 실력 있는 대학까지 보낼 만하고, 따라서 납입금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비참한 느낌을 맛보는 일은 없으되 비싼 과외 공부까지 시킬 돈은 없고, 용돈에 짠 편이지만 책이나 학용품을 산다면 비교적 후하고, 옷은 초라하지 않게 입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형제끼리 물려 입고 바꿔 입은 거거나 값싼 기성복이고……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끼리 큰마음 먹고 외식도 하지만 기껏해야 불고기나 통닭 정도고, 제 집은 지냈으되 좀 더 나은 집으로 가고 싶은 게 가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찾아오면 창피할 정

8) 황병주는 박완서 소설에서의 중산층의 욕망에 대해 분석한 글에서, '중산(층)'과 '중류(층)'에 대한 구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의 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상허학보』 50집, 상허학회, 2017, 110면.)

9) 이때 위치에 대한 감각은 좁은 의미에서는 상하, 좌우, 동서남북, 앞뒤 등의 위치에 대한 감각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이 놓여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치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체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게 한다는 것에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위치감이 주체의 자의식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0) 박진영, 『1970년 소설에 나타난 거주권의 문제와 공간의 분리 - 조세희·윤홍길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7.no.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52면.

도는 아닌……. 엄마는 아이들의 입학금이나 장차 있을 큰일에 대비해 게나 적금을 한두 개쯤 부으면서 식구가 급한 병이라도 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만큼의 은밀한 저금통장이 있는……<sup>11)</sup>

② 그들의 돈에 대한 너무도 엄청난 오해, 그리고 도덕심의 부재, 또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추악한 사물이라는 것…… 이런 몇가지 굵직한 공통점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닳게 느꼈으나보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랄 거냐는 말과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한밑천 잡아 한번 꾀발 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말도 얼마나 닳아 있다. 닳은 정신구조, 아니 동일인의 목소리 같지 않은가.<sup>12)</sup>

③ 김대두라는 인품이 만약 재발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돈을 꾀발 나게 쓸 수밖에 없었을 테고, 요즈음 문제된 재발의 자제들처럼 도덕적으로 허약한 인품이 만약 김대두의 세계처럼 참담한 극빈의 세계로 떨어진다면 김대두처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도 나는 지독한 부자와 지독한 가난에 대해 비슷한 혐오감과 공포감마저 느낀다. 자식들은 그저 부자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키워야지 싶긴 한데, 그 보통 환경이라는 게 뭔지가 또 상당히 어렵다.<sup>13)</sup>

위의 인용문들은 『보통으로 살자』라는 제목의 산문으로, 박완서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표본'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되는 부분이다. ①의 인용문에서 “한 가정이 가족끼리의 친애감을 유지하면서, 제각기의 삶도 즐겁게 영위하기에 알맞은 만큼만 돈이 있는 집”을 보통 사는 집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때의 '보통'은 곧 '중'의 상태,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중'의

11) 박완서, 『보통으로 살자』, 『쑥스러운 고백(산문전집 1)』, 문학동네, 2016, 107-108면. 밑줄은 인용자.

12) 박완서, 위의 책, 106면. 밑줄은 인용자.

13) 위의 책, 106-107면. 밑줄은 인용자.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 이 중산층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인데, ②의 인용문에서 박완서는 부자와 가난뱅이의 의식구조를 동일선상에 둬으로써 중산층을 제외한 상류층과 하류층을 모두 (잘) 살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존재로 묘사한다. 하지만 반대로 두 계층에게 있어 ‘중산층’이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박완서가 말하는 ‘너무 잘 살지도, 너무 못 살지도 않는’ 중산층의 상태라는 것은 상류층에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욕망의 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류층에게는 중산층만큼 살아야 한다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산층’, ‘보통’의 삶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③의 인용문은 ②의 인용문 보다 심화된 감정을 드러낸다. ‘지독한 부자도 지독한 가난도 염오<sup>厭惡</sup>’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이 글은 제목 그대로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것에 대해 ‘혐오감과 공포감’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특히 ‘공포감’은 독특한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내용에는 ‘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제목에는 ‘염오’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때의 ‘염오<sup>厭惡</sup>’는 ‘혐오<sup>嫌惡</sup>’와 유사한 싫다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또 다른 뜻인 ‘염오<sup>染汚</sup>’은 오염<sup>汚染</sup>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공포감’이라는 감정은 ‘혐오’보다는 ‘염오<sup>染汚</sup>’로 접근했을 때 훨씬 그 의미가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우선 그것에 대한 혐오와 공포(싫고 두려운 것)인 동시에 염오에 대한 공포(그것에 오염될까봐 두려운 마음)를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스바움은 원치 않는 대상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거부를 실천하는 것이 곧 혐오이고,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추방하고자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4)</sup> 따라서 인용문에서 염오(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염오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과 자신이 거리감을 갖고 구별 지은 뒤에 느

끼는 감정이다. 즉 그들과 섞일 것에 대한, 피하고 싶었던 그들의 '무엇'에 오염될까봐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태도와 하류층의 교양없고 상스러운 모습은 '중'인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오염에 대한 공포는 그 대상과 위치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하는 동시에, 의식하는 '나'란 존재와 위치도 드러낸다. 그들을 혐오와 염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설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고결함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5)</sup> 이는 ①의 인용문과 다르게 ②와 ③의 인용문에서의 '중'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차원에서의 '중'의 의미도 담고 있으며, 각각도에서 '중'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중'의 위치란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고, 동시에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런데 이 '중'은 다시 수직적인 상태인지 수평적인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위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수직적인 상태에서의 '중'이란 '중간(中間)'으로서 정가운데, 어떤 의미에서의 '끼인 상태'<sup>16)</sup>이다. 하지만 수평적인 상태에 놓인 '중'은 수직적인 상태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같은 가운데의 위치이긴 하지만 수직적 상태와는 다르게 위와 아래에 대한 구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평적 상태에서의 '중'은 '중심(中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 14)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66면.  
 15) "오염의 메타포는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이 지배계급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함의한다. '더럽다' 라는 말은 죽일 수도 길들일 수도 없는 타자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을 담고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정이 굳이 필요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주체성을 역설적으로 인정한다." 김현경, 『사람·장소·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80면.  
 16) 황병주는 박완서가 보통사람을 위와 아래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의미화한 것을 언급하며, 중산층은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위 아래로부터 응시되는 자리이므로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한 위치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이에 낀(in-between) 존재는 간주관성의 미덕을 보일 수도 있으나 불안과 분열로 기회주의로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황병주, 앞의 논문, 112면.

앞서 부자와 가난뱅이가 결국 동일하다고 언급한 바를 되짚어 본다면, 박완서가 언급하는 ‘중’의 위치란 단순히 경제나 계급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에 더 가까워 보인다.<sup>17)</sup> 박완서가 강조하는 이상적 ‘중’의 위치와 의미는 위와 아래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의 ‘중간’보다는, 좌우의 대립을 중재하는 ‘중심’의 의미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살펴본다면, 박완서가 언급하는 ‘중’의 의미는 크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중간’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중심’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중’의 이중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박적골’과 ‘현저동’의 공간 형상화를 살펴봄으로써 ‘중’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두 공간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중’의 의미를 추적한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자각하고 있는 ‘나’의 거주 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곧 ‘중’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중’의 의미가 작가의 ‘중산층’에 대한 감각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3. 수평적 경제 공동체로서의 박적골

전술했듯 자본과 돈에 대한 접근은 ‘한국전쟁’과 함께 박완서 소설에서

17) 정홍섭은 박완서가 사회적 지위나 고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중산층’이라는 말 대신 애매하고 비고정적이며 유연한 함축성을 지닌 ‘중류층’이나 ‘층’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담론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홍섭, 『1970년대 서울(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관한 극한의 성찰』,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418면.

18) 박완서는 “아래위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층, “바로 이 보통 사는 사람”(박완서, 앞의 책(2016), 110면.)으로 중산층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중심’의 의미에 가깝다.



반복되어 온 모티프이다. 따라서 다양한 작품들이 중산층 논의에서 거론되어 왔는데, 『싱아』는 1992년에 쓰여졌음에도 다른 90년대 작품인 『미망』(1985~1990)과 『아주 오래된 농담』(1999~2000)과는 다르게 자본주의나 돈에 대해 논의할 때 거론되는 작품은 아니었다. 이는 『싱아』의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는 부제로 인해 주로 유년기와 한국전쟁에 주목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92년도 작품이기 때문에 당대를 살아가는 박완서의 자본과 돈에 대한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싱아』는 『미망』과 '개성'이라는 공간적 접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미망』과의 연결선상에서 경제적 측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sup>19)</sup>

박적골엔 이렇게 두 양반집과, 열여섯인가 열일곱 호의 양반 아닌 집이 있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았다. 바위라고는 하나도 없이 능선이 부드럽고 밋밋한 동산이 두팔을 벌려 얼싸안은 듯한 동네는 앞이 탁 트이고 벌이 넓었다. 넓은 벌 한가운데를 개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 말마따나 '옛 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은 아무 데나 있었다. 우리 집에서 뒷간에 가러도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실개천은 흐르다가 논을 만나면 곧잘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군 우물이라고 해서 먹는 우물과 구별했다. 지금 생각하니 소규모의 저수지가 아니었던

19) 우찬제는 개성에 대해 다루는 『미망』이야말로 박완서가 자기 문학 작업의 모든 운명을 걸고 시도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자기의 문학적 원천으로서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개성 특유의 '인삼과 '송상(松商)'을 주요 서사적 기제로 활용한 점을 언급한다. 우찬제, 「여성 역사의 상호텍스트성과 『미망』의 수사학 - 박완서의 『미망』,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5, 350-351면.

그 밖에 박완서 소설에서 '개성'의 공간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미망』의 '개성'을 젠더지리학적 관점에서 탈근대적 공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 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박완서 소설이 근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미망』을 분석하는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이 있다.

가 싶다. 거의 흉년이 들지 않는 넓은 농지는 다 우리 마을 사람들 소유였다. 땅을 독차지한 집도 땅을 못 가진 집도 없었다. 다들 일 년 먹을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자작농들이었고 부지런했다.

그런 고장에서 여덟 살까지 자라는 동안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 동무들과 손잡고 댄 동네를 가 볼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넓은 앞벌로는 아무리 멀리 나가도 댄 마을이 나오지 않았다. 뒷동산을 넘어야만 이웃마을이 나왔고, 이웃마을의 풍경도 별로 신기할 게 없었다. 옆구리에 텃밭을 낀 집들이 산기슭에 안겨 있었고, 넓은 벌을 풍성한 치맛자락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sup>20)</sup>

위의 인용문은 『싱아』의 도입부, ‘나가 태어난 ‘박적골’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에서 ‘박적골’은 작가가 잊을 수 없는(未忘) 장소, 서울이자 도시인 현저동과 대비되는 자연으로서 주목해왔고, 위의 인용문은 자연으로서의 박적골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박적골이 자연으로 묘사되는 것 외의 지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개성’에서도 한참 떨어진 벽촌의 이십호 남짓의 가구가 사는 ‘박적골’은 ‘나의 집을 포함해 단 두 집만이 박씨 성을 쓰는 양반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적골’에 대한 소개는 그곳의 환경보다도<sup>21)</sup> 그 동네의 살림살이에 대한 것으로 시작된다. 분명 양반과 양반이 아닌 집이 있긴 했지만 그

20)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13면. 밑줄은 인용자. 이후 본문에 인용되는 『싱아』는 면수만 표기한다.

21) 박적골의 자연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은 더 뒷부분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싱아』와 관련된 논의들은 도시로서의 서울(현저동)과 자연으로서의 박적골(개성)을 대립되는 공간으로 설정한다. 본고에서도 두 공간을 대립되는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기존논의와 유사하지만 두 공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르다. 본고는 두 공간이 단순히 자연(시골)과 도시라는 표면적 차이 외에도 ‘풍속으로서의 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것이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자본에 의한 계급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곳(서울)과 비교했을 때 '박적골'의 특징적인 부분이며, 그것이 '경제적 평등함'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이후 '나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땅을 독차지한 집도 땅을 가지지 못한 집도 없었다'는 것으로 그 평등함을 한번 더 구체화 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박완서에게 의미 있는 기억, '박적골'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가기 전까지 "부자와 가난뱅이"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그렇게" 라는 것은 곧 "평등하게"라는 말로 바뀌도 무방할 것이다.<sup>22)</sup>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땅이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다가 처음 들은 탄 나라 이름은 덕국(德國)이었다. 아주 오랜 훗날에야 덕국이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걸 모를 때도 내가 들은 최초의 외국은 나에게 충분히 신비로웠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물감을 사 오시는 것은 대개 추석이나 설을 앞둔 무렵이었는데, "이건 덕국 물감이다"라고 따로 꺼내 놓는 물감은 네모난 봉지에 들어 있었는데, 빨간 물감에는 빨간 종지로 파란 물감에는 파란 종지로 표시가 돼 있었다. 우표딱지를 대각선으로 접은 것만한 세모난 표시는 뽕뽕뽕뽕하고 선명해서 꼭 진한 꽃잎을 문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덕국 물감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문화의 예감이었다. (13-14면, 밑줄은 인용자)

'박적골'은 경제적 차이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공간이었고, '개성'에서도

22) 기존 논의에서 이런 부분은 "고향의 완전한 평화와 조화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 생태학적 측면으로 해석되곤 한다. (이가야, 『에세이와 문학적 자화상 -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물질인생(La vie matérielle)』과 박완서의 『한 길 사람 속』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7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06면.)

멀리 떨어진 벽촌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된 공간도 아니었다. ‘나의 집은 양반가였기 때문에 다른 집들과는 달리 논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사러 송도를 가는 것은 모두 남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나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박적골 밖의 외지(外地)의 냄새를 묻혀 오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할아버지가 사오시는 물건 중 기억에 남는 것도 ‘덕국(독일) 물감’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비록 ‘박적골’은 ‘개성’에서도 멀리 떨어진 벽촌으로 묘사되곤 있지만, 이미 ‘개성’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외국 물건을 접할 수 있을 만큼 그 수요가 많았고 물건을 살만큼의 능력도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개성’과 ‘개성’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개성주민들은 검소하고 집은 비록 적어도 반드시 토지가 있고 또는 노동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또 공동사업을 좋아하고 의뢰(依賴)하는 마음이 없다. 단점은 사람들이 매정하고 타향사람하고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 사회계급에 상중하가 없고 관청사람과 가까이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sup>23)</sup>

② (…)특히 개성사람들의 그 부富有는 경성처럼 1인이 수백만 내지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백만, 오십만, 삼십만, 이십만 전후의 자산가가 많이 있어 사회중추가 되고 한 사람도 빈곤한 자가 없다.<sup>24)</sup>

③ 우리 어머니는 개성 사람이 아니고 벽제면이라는 서울 근교 사람이어서 딸을 교육 시키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옛날에는 장리빛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시골에서들은 곡식이 떨어지면 부잣집에서 다음 추수 때까지

23) 김연상, 『開城我觀』, 『半島時論』 2-5, 1917. 5, 59면. 정종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vol.no.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294면 재인용.

24) 모리와키 히데토森脇英士, 『偉哉開城』, 『半島時論』 2-7, 1917. 7, 6-7면. 정종현, 위의 논문, 295면 재인용.

장리로 곡식을 빌려다 먹곤 했다는데, 엄마가 시집와서 보니 개성 사람들은 장리빚이라는 걸 모르더라요. 그만큼 개성 사람들은 자기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지을 정도로 풍요로운 편이었죠.<sup>25)</sup>

인용문 ①은 일본 동경에서 창간한 조선문 시사종합지인 『반도시론(半島時論)』에서 개성군수 김연상이 개성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고, 인용문 ②는 당시 '개성'에서 거주했던 개성경찰서장 모리와키 히데토(森脇英士)가 쓴 『위재개성(偉哉開城)』이라는 글에서 개성 사람들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인용문 ③은 한 인터뷰에서 박완서가 어머니의 말을 빌려 '개성'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세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성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함'이다. 인용문 ①에서는 계급적 평등함과 부족함없는 삶이 드러나고, 인용문②와 ③에서는 서울(경성, 백제면)과는 다르게 빈부 격차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경제적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인용문 ③에서도 서울(백제면)과는 다르게 빈부 격차가 없는 개성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미뤄보면 '박적골'은 기존논의들처럼 단순히 도시와 대비되는 '자연'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본화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그리고 이는 박적골(개성)과 현저동(서울)

25) 호원숙 위음,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소설가 박완서 대담집)』, 달 출판사, 2009, 188면.

26) 특히나 1930년대에는 이미 개성의 대표적인 자본가 2,3세대들이 일본, 유럽,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와 새로운 세대로 개성에 자리매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엘리트 유학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보(高麗時報)』는 "고려문화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개성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전통과 모더니티의 결합을 개성의 지역성으로 내세운다. 정중현, 앞의 논문, 304-305면.

27) 물론 박적골은 '자연'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의 묘사란 성인인 '나'의 기억 속에서의 유년의 공간, 물리적 경계로 인해 현재로서는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박완서는 "거기가 이상향이면서도 또 공산 치하라는걸 무서워하는 것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고향에 가보고 싶으면서도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가 보고 싶은 마음하고 안 가보고 싶은 마음하고 복합적이예요. 가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상실하게 되는거죠" 라고 말한 바 있다. (박완서,

이 ‘풍속으로서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싱야』에서는 이러한 박적골의 ‘경제적 평등성’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진 않지만 ‘개성’ 전체의 지역적 특성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미 인삼 상업으로 인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짐작케 한다.<sup>28)</sup> 더불어 ‘개성’은 그 부를 이용해 일본과 미국 등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들어온 엘리트 세대로 인해 문화적 차원의 전통과 경제적 차원의 모더니티가 결합된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박적골’은 그러한 경제 문화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간으로 그려지진 않으나 할아버지를 비롯한 집안의 남자들은 이미 ‘개성’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으로 서술되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박적골’은 경제적 차이가 없는 곳, 즉 더 잘 사는 사람도, 더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곳이며, 이는 앞서 박완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상적인 계층으로서의 ‘보통’의 사람들, ‘중산층’이 사는 공간에 가깝다.<sup>29)</sup>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소설 속 ‘싱야’는 ‘나’의 유년을 상징하는 매개물<sup>30)</sup>인 동시에, ‘평등’과 ‘분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싱야’가 치천

『저문 날을 건너오는 소설』, 『박완서의 말 -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102-103면.)

유인혁은 박완서 소설에서의 이러한 장소상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라진 장소를 그리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복원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유인혁,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여성의 탈장소와 이동성의 주체』, 『여성문학연구』 제 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73면 참고.)

28) 조진태·백원혁과 함께 대한천일은행 설립을 주도한 김기영, 개성의 대지주이자 1903년 대한천일은행의 주주로 참여한 김진구의 아들 김정호 등의 개성상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309면.

29) 박완서는 『미망』이 작품 중 최초로 살아보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 당시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히며, 그러다보니 인삼 농사와 상업을 겪은 개성인 이야기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사는 소위 양심적인 중산층의 최소한의 고민과 거진 같아지고 말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완서, 『미망 1』, 작가의 말, 세계사, 2012.)

에 널린 박적골의 산은 풍요로운 곳으로 마을의 아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지만 '현저동'의 인왕산은 “쑥 하나 돌아나지 않”고 “메마른 흙에선 겨우 아카시아”만 악착같이 자라는 곳으로, 그마저도 삼림 감독이 아카시아 꽃을 따먹는 아이들을 쫓으며 관리하는 곳이다. 인왕산에서는 아카시아 꽃잎 하나까지도 소유자의 재산으로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박적골’은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든 계급적으로든 평등함을 누리는 수평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박완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중(중심)’으로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4. 수직적 경제감(sense of economic) 형성으로서의 현저동

『싱아』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사후적인 기억들로 구성된 유년기를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유년기의 박적골이 ‘이상적 중부’, ‘중심’으로서의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말해 ‘박적골’과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박적골’에 대한 앞선 3장의 서술은 모두 ‘서울’이라는 공간과 비교된 ‘박적골’이다. 그리고 이것은 박적골이 이상적 공간이기 위해선 서울은 그렇지 않은 공간, 즉 명백한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엄마를 따라 서울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가 본 송도의 “인공적인 정연함과 정결함”은 나로 하여금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42면)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나’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던 박적골의 생활과

30) 『미망』에서도 ‘싱아’는 등장한다. 할아버지 전처만이 자신의 손녀인 태임을 데리고 인삼밭을 가기 위해 산을 넘으며 따주는 것이 바로 ‘싱아’이다. 이때의 싱아는 손녀 태임에 전처만의 애정인 동시에, 태임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물려주는 ‘재산’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개성’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외에도 『싱아』와 『미망』에서 드러나는 ‘개성’의 풍속으로서의 경제에 대해선 면밀한 연구를 요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는 또 다른 '부富'와 세련된 문명을 송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집집마다 있는 유리창의 이질감은 신기함과 황홀한 듯 불안감마저 주는 낯선 대상이다. 송도에 가까워지는 내리막길에서 나는 바위를 "기다란 돈케 처럼 누워있"(43면)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당시 개성의 경제적 환경을 알고 있는 성인이 된 작가의 서술이며, 동시에 서술자 '내가 은연 중에 포착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개성역의 웅장함과 복잡함 속에 큰 사닥다리처럼 보이는 구름다리를 보며 엄마는 "서울역의 구름다리는 여기 댈 것도 아니게 크고 복잡하다"며 "서울 자랑을 잊지 않"(42면)는다. 정갈한 질서가 있는 부유한 도시인 송도, 그러나 이런 곳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다는 서울이라는 곳은, 따라서 어린 '나'에게 부유함과 화려함, 즉 '어마어마한 돈'의 이미지로 상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과히 개성역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서울역에 도착하여 보게 되는 것은 각설이때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짐지겟꾼들과 값을 흥정하는 엄마의 모습이다.<sup>31)</sup> 그리고 곧 '현저동'이라는 주소를 말하자 보인 지겟꾼들의 태도는 내가 '각설이 같은' 이들에게 무시 당하는 존재임을, 서울에서의 우리 식구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이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초가집에 딸린 초라한 문간방과 세간은 서울에 오기 전에 품었던 서울이라는 공간의 풍요로운 돈의 이미지를 부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은 도착하자마자 '나'로 하여금 '박적골'에서는 알지 못했던 차이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이런 차이는 당시의 경성이 이

31) 나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빨간 모자에 곤색 양복을 입은 짐꾼들에게 보따리를 맡기는 것을 보았다고 서술하는데, 짐지겟꾼들 사이에서도 옷차림 등을 통해 짐값의 차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싱아』, 44-45면) 『엄마의 말뚝 1』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때 현저동으로 가자는 엄마의 말에 지겟꾼이 난색을 하자 엄마는 그나마 나이가 많아서 별이가 시원찮을 것이기 때문에 맡긴 것이라는 식으로 선심을 쓰듯 말을 한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1』, 세계사, 2012, 35면) 이런 것들은 모두 서울에 오자마자 내가 겪게 되는 '차이/차별'의 다름 아니다.



미 자본주의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성의 변화에 대한 글을 보면 경성은 이미 조선식 건물이 헐리고 2,3층 4,5층의 벽돌집이 들어서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그 길 위로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대도시로 묘사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로 빈민 역시 늘어나며, 경성의 한복판에서 쫓겨난 이들로 인해 산언덕과 같은 곳은 수 천호의 집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32)</sup>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일본인이 거주하는 남촌과 이곳에서 배제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북촌의 분할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커지며, 이 분할은 다시 경성이라는 식민지 도시 안에서 또 다른 식민지 공간을 만들어낸다.<sup>33)</sup>

당시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정(町)'을,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동(洞)'을 썼는데 이렇듯 경성을 분할시키는 장소명은 곧 그곳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치우쳐진 권력관계는 당연히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박적골이 개성에서 한참 떨어진 벽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궁핍이 없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① 과연 현저동보다 훨씬 정돈되고 아늑한 동네였다. 무엇보다도 집이 비탈에 붙어 있지 않고 평지에 자리잡은 게 마음에 들었다. (중략)

어른어른 비치는 유리문에 달린 대청마루는 화강암 깨끗한 땃돌 위에 높이 솟아 있고, 정갈하게 비질한 마당가엔 수도꼭지와 양회로 싸바른 네

32) 류광열, 「대경성의 점경 1,2」, 『사해공론』 6 (1935.10), 82-83면.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 1930년대 서울의 백화점과 소비문화」, 『사회와 역사』 제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86면 재인용.

33) 박적골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위치적으로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서울에서도 중심은 따로 있다. '진고개'라고 불렀던 현재의 충무로는 각 도시의 중심공간이라는 뜻인 본정(本町)으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명칭은 일본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절대 중심에 대한 지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중환,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 충무로·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Vol.48 No.3., 2013, 438면.; 전중환,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의 생산과 장소의 정치 - 원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3(2), 2011, 166-167면. 참조.

모난 물확이 보였다. 물통을 들고 따라 들어온 행랑 어머니 물확에서 넘치는 물을 길어 담았다. 물이 팔팔 나오는 수도꼭지가 제일 신기하고 부러웠다. (55면. 밑줄 인용자)

② 현저동엔 수도 있는 집이 없었다. 집집마다 물을 사 먹거나 길어다 먹었다. 그 높은 층층다리 밑 평지에 있는 공동수도에는 언제나 두 개씩 짝을 지은 행렬이 끝도 없이 줄 서 있곤 했다. (중략) 엄마도 물지계를 질 줄 몰라 하루 한 지계씩 물장수 물을 대 먹고 있었다. 먹는 물만이 아니라 씻고 빠는 모든 걸 그 물 두 초롱에 의지해야 했다. 서울 오고 나서 달포 남짓 동안에 셋방살이 법도 다음으로 많이 들은 잔소리가 물 아껴 쓰는 법이었다. (중략) 물장수는 어스름 새벽에 왔다. 안집도 물장수 물을 먹으니까 누가 미리 빗장을 따 놓는지 훔쳐 갈 것도 없는 집구석이니까 밤새도록 따 놓고 자는지 대문 여는 소리는 못 듣고 철썩 하고 독에 물 붓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철썩, 철썩 하고 두 번 나는 물소리는 어떤 궁핍감보다도 실감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두 바가지의 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니, 물을 다 아껴야 한다는건 시골선 상상도 못 했었다. (55-57쪽. 밑줄 인용자)

③ 사랑마당과 뒷간이 있는 텃밭사이를 흐르는 개울은 뒤란 개나리 율타리 밖을 휘돌아 내려오는 거였다. 뒤란은 또한 안방 머리맡이기도 해서 장마철엔 물소리가 팔팔 시끄럽게 들렸다. 보통 때는 조잘대는 것처럼 유쾌하게 들릴 적도 있고, 졸졸 귀기울여도 들릴락 말락 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물이 넘치거나 마른 적은 없었다. 겨울에도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쉬지 않고 흘렀다. 가장자리의 얼음장은 별의별 신기한 무늬로 아롱거렸었다. 추운 줄도 모르고 환상적인 모양의 살얼음을 깨트려서 입속에 넣고 아삭거리면 핏줄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상쾌했다. (중략) 어디를 가나 물 흐르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57면. 밑줄 인용자)

④ 숙부네는 염천교 너머 봉래동에 살았는데 (중략) 숙부 내외가 같이

노는 날을 잡아 우리 식구를 다 초대해서 고기니 생선이니를 푸짐하게 먹여 준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차린 걸로 봐서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지만 사는 환경은 우리 집만도 못한 것 같았다. 셋방만 십여 가구가 양쪽으로 길게 붙은 골목 같은 마당은 하늘을 함석으로 가려서 생전 별이 들지 않았고 바닥은 울퉁불퉁하고도 습했다.

막다른 집처럼 맨 끄트머리에 있는 숙부네까지 가려면 여간 조심하지 않고는 구정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기 일쑤였다. 현저동처럼 물이 귀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더 비위생적인 동네였다. 엄마는 사대문 안을 일률적으로 문 안이라고 부르며 문 안만 사람 살 동네처럼 여기고, 언젠가는 문 안에 살아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문 안에도 이런 빈민굴은 있었다. (95-96면, 밑줄 인용자)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짐지렛꾼에 의해서 느끼게 되고, 현저동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박적골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아무 때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것,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없는 것, 밖에 나가서 놀 수 없는 것, 놀거리가 없는 것 등은 모두 현저동이라는 공간과 동시에 '가난과 궁핍'이라는 공간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공간의 정체성은 곧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며, 이것은 내가 다른 공간과 현저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①②③ 인용문은 사직동 친척 집의 수도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고 수도가 없는 현재 현저동의 삶을 떠올리며, 동시에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던 박적골의 풍경을 떠올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④의 인용문은 역시 서울의 문 안에 살고있는 숙부네 동네의 수도 풍경에 대한 묘사이다. 네 개의 인용문은 '물'을 통해 각 공간의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끊임 없이 다른 공간들과 내가 속한 공간을 비교하거나 다른 공간끼리를 비교하며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한다. 수도가 없는 현저동은 수도가 있

는 사직동과 박적골에 비해서 열악한 공간이지만, 같은 문안이라고 하더라도 숙부네가 살고있는 봉래동은 수도가 있을지언정 현저동보다 더 비위생적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같은 문안이라도 사직동과 봉래동은 위생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나’는 이를 통해 숙부네가 돈은 잘 벌지언정 사는 환경은 우리집만 못한 것 같다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sup>34)</sup> 이는 이후에 현저동 아이들과 사직동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비교<sup>35)</sup>나 자신을 “시골때기 꼴때기”(63면) 라고 놀리는 현저동 아이들의 모습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나’의 태도<sup>36)</sup> 등에서도 반복된다.

이처럼 ‘나’는 다른 공간과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 이는 ‘박적골’에 있을 때, 자신과 비교 대상이 ‘자연’ 뿐이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진짜 서울아이들처럼은 될 수 없고, 서울의 하층민인 현저동 아이들은 비웃을 수 있는 ‘나’는 자신을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않는 ‘끼인 존재’로 규정한다.<sup>37)</sup> 이런 태도는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묘사되는데, 어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세들어 살면서도 속으론 현저동 사람들을 ‘바닥 상갓’이라 무시하고 겉으로는 모두에게 예의바른 ‘척’을 한다. ‘나’는 시골에선 서울을 핑계로 으스대고 서울서는 근지있는 집의

34) 데이비드 하비는 ‘부와 권력의 분배가 양극화된 결과는 도시의 공간 형태에 새겨진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45면.

35) 입학식에서 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직동의 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는 달라 보였”(『sing아』, 71면)고, 선생님이 아무리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나눠주려고 해도 그 중심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부는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귀 동무들과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73면)이다.

36) ‘나’는 “시골때기 꼴때기”라고 놀리는 현저동 아이들의 태도에서 “그 애들이 나를 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골이란 태도와 그 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비교하면서 참 별꼴 다 본다고 가소롭게 생각”(『sing아』, 63면)한다.

37) 그 밖에도 『시골뜨기 서울뜨기』라는 산문을 통해서도 이런 태도는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골(강화도)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시골(강화도)에서는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자신을 “제대로 된 시골뜨기도 못 되고 딱 바라진 서울뜨기도 못 되”는 “얼치기”로 언급한다. (박완서, 『시골뜨기 서울뜨기』, 앞의 책(2016), 239면.)

며느리라는 핑계로 잘난 척을 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엄마의 두 얼굴이자 약점'(61면)이라고 서술한다. 즉 '현저동'에서 내가 얻게 되는 '중'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않)는 '끼인 존재'의 이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것에 대해 혐오와 염오를 느끼는 중산층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이다. '현저동'에서의 삶이 어린 '나'로 하여금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끼인 존재'로 느끼게 했다면, '한국전쟁'은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을 '끼인 존재'로의 소외와 차별 속에 내몬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단지 한강다리를 건너 이남으로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부역의 혐의를 받거나<sup>38)</sup> 피난을 다녀온 것이 하나의 특권계급(도강파)이 될 정도로, 전쟁 발발 이후 서울과 서울 사람들은 남과 북 사이에 끼인 '중간'의 상태가 된다.<sup>39)</sup>

특히 오빠의 전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의 '중간'을 잘 보여준다. 좌익활동에 깊게 몸 담고 있었던 오빠는 새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서 조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보도연맹까지 들게 된다. 하지만 이후 오빠는 "마치 엄마 때문에 좌익운동에서 발을 빼고 엄마 보란 듯이 보도연맹에도 가입한 것처럼"(215면) 구는데, 이런 오빠의 태도는 그의 전향이 '완전한 전향, 극(極)에서 극(極)으로의 전환이 아닌 어중간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빠의 애매한 위치는

38) 실제로 서울 토박이로 당시 종로 3가에 살고 있던 이병익(1933년생)은 "(...) 그러니까 아 이게 뭐가 난리가 나긴 났구나. 그러나 그때 정부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들 그래서 움직이지들을 안 했어요. 그때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들두 않고 뭐 끝 다 끝나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라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당시에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구술사연구』 제2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1, 13면.

39) 박완서는 이처럼 서울에서 남으로 북으로 끌려 다녀야 했던 서울 피난민들을 '체질, 키질 당하는 쪽정어'(『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137면.) 로 표현한 바 있다.

전쟁 발발 후 동네 사람들이 우리집을 거물급 공산당원의 집으로 오해하게 하여 따돌림과 차별을 받게 하고, 서울이 수복된 이후엔 이웃의 고발에 의해 여기저기 끌려 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sup>40</sup>해야 하는 ‘벌레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천지에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마치 차고 푸른 비수가 등골을 살짝 그은 것처럼 소름이 짝 끼쳤다. 그건 천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세상에 나서 처음 느껴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독립문까지 뻗어 보이는 한글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 있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차라리 우리도 감쪽같이 소멸할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싶었다. (268-269면, 밑줄은 인용자)

『싱아』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리에 총상을 당한 오빠 때문에 결국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예전에 살던 ‘현저동’으로 숨어든 모습을 그리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박완서의 작가로서의 탄생을 예감하는 부분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소외와 고립, 차별로서의 ‘중간(中間地)’인 서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도시로 언제나 북적거리던 서울은 모두가 떠난 뒤 “거대한 공허”만을 남겨둔다. 박적골에서 올라와 마

40) 엄마와 올케가 받은 시민증, 내가 시민증을 받기 위해 학생임을 증명해야 했던 학생증 발급, 오빠의 도민증, 한강 이남으로의 피난을 위해 필요한 ‘도강증’ 등은 모두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증명의 문서로서, 이는 곧 살기 위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박완서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시민증’, ‘도민증’ 등의 다양한 증명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다.

주했던 서울(현저동)은 자본과 권력으로 점철된 공간으로서, '나'를 '끼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화<sup>41)</sup>되고 오로지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만이 남겨진 상태에서도 서울은 나와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차별과 소외, 고립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생존'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근원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후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기의 '잘 살아보자'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난'에 대한 혐오와 맹목적인 부의 추구라는 천민자본주의 사회의 소시민, 즉 중산층의 정체성<sup>42)</sup>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수평적 경제공동체로 향상화된 '박적골'은 중산층으로서의 작가의 자기반성적 태도가 반영된 '이상적 중'의 삶에 대한 제시이다. '개성' 특유의 풍속과 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속물주의 중산층의 근원을, 성실한 삶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적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작가의 대안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41) "조금밖에 없는 식량도 걱정이 안 됐다. 다닥다닥 붙은 빈 집들이 식량으로 보였다. 집집마다 설마 밀가루 몇 줌, 보리쌀 한두 되박쭈 없을까. 나는 벌써 빈 집을 털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았다."(『싱아』, 269면) 당시는 자본과 권력 뿐만 아니라 도덕까지 무화된 순간으로 묘사된다.

42) 중산층의 정체성에 대해선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보다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정체성은 생존자의 '죄책감'과 같은 감정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부처님 근처』의 '나'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을 감추다 22년만에 절에 위패를 모시게 된다. 두 죽음을 삼킨 뒤 모녀가 선택한 것은 안정적인 삶으로, '나'는 "처자식의 먹이를 벌어들이는 것 외의 자기가 속한 사회에 선불리 참여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남자"(『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4, 108면)를 만나 결혼하지만 결국 자신이 삼킨 죽음에 대해 토해내고 싶은 욕망을 '소설쓰기'로 풀어낸다. 이 작품 외에도 박완서의 소설에서 전쟁으로 인해 와해되는 가족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개성' 특유의 경제 풍속을 다루는 『미망』의 출간 이후 자전적 소설로서의 『싱아』와 『그 산』의 창작은 자신의 근원을 되짚는 과정을 통한 작가의 자기반성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5. 나가며

본고는 박완서 소설에서 나타나는 ‘중산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산층’의 개념을 ‘중’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였다. 중산층의 개념이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바뀌며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공간이라 할 때, 동시에 이 공간의 정체성은 거주하는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존논의에서의 박적골과 현저동은 단순히 자연과 도시,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적인 공간이었다면 본고에서는 『싱아』가 사후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쓴 자전적 소설이며, 작가가 1930-1950년대의 풍속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동시에 이 작품이 박완서가 돈과 자본에 대해 비판적인 작품들을 써나가던 1990년대의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박적골과 현저동이 아예 이질적인 공간이 아닌 당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풍속으로서의 경제적 차이가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였고, 두 공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박적골’은 ‘현저동’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나’로 인해, 경제적·계급적 차별이 없는 수평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로 인해 ‘이상적인 중(중심)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현저동’은 어린 ‘나’가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차이와 차별의 공간으로 스스로를 ‘끼인 존재’로 규정하게 만드는 ‘중간’의 공간이다. 이러한 ‘끼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를 포함하여 당시의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사람들 전체로 확대되며, 이후 산업화시대와 맞물려 중산층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본고는 ‘박적골’과 ‘현저동’이라는 두 공간을 이중적 의미에서의 ‘중’으로 살펴봄으로써, ‘끼인 존재’로서의 중산층의 유동성과 불안정함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고, 더불어 이상적인 중산층 모델을 ‘박적골’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긍정적 자본주의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2. 단행본

국내 저서

김현경, 『사람·장소·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6.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_\_\_\_\_, 『미망 1』 작가의 말, 세계사, 2012.

\_\_\_\_\_, 『아주 오래된 농담』 작가의 말, 세계사, 2012.

\_\_\_\_\_, 『엄마의 말뚝 1』, 세계사, 2012.

\_\_\_\_\_,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단편전집 1), 문학동네, 2014.

\_\_\_\_\_, 『보통으로 살자』, 『쑥스러운 고백』(산문전집 1), 문학동네, 2016.

\_\_\_\_\_, 『저문 날을 건너오는 소설』,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우찬제, 『여성 역사의 상호텍스트성과 '미망'의 수사학 —박완서의 『미망』』,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5.

호원숙 엮음,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소설가 박완서 대담집)』, 달 출판사, 2009.

국외 저서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휴. J. 실버만, 윤호병 옮김, 『텍스트성·철학·예술: 해석학과 해체주의 사이』, 소명출판.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3. 논문 및 평문

김미현, 『번역 그리고 반역』, 『아주 오래된 농담』, 세계사, 2012.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1930년대 서울의 백화점과 소비문화』, 『사회와 역사』 제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 박진영, 『1970년 소설에 나타난 거주권의 문제와 공간의 분리 - 조세희·윤홍길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7.no.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유인혁, 『박완서의 『나무』에 나타난 여성의 탈장소와 이동성의 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구술사연구』 제2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1.
- 이가야, 『에세이와 문학적 자화상 -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물질 인생(La vie matérielle)』과 박완서의 『한 길 사람 속』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7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8.
-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충무로·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Vol.48 No.3, 2013.
- \_\_\_\_\_,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의 생산과 장소의 정치 -원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3(2), 2011.
- 정중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vol.no.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 정홍섭, 『1970년대 서울(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관한 극한의 성찰』,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
-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현대소설학회, 2012.
- 최재봉, 『작가 인터뷰』,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상허학보』 50집, 상허학회, 2017, 110면.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middle(中)’ in  
Park Wan-Seo's novel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Space

An, A-Reum

This article is aimed at analyzing the nature of the ‘middle class’ repeatedly mentioned in Park Wan-seo's Texts, with the focus of spatial representation shown in *Who ate all That many Sing-A?. Sing-A* is autobiographical novel, and also reveals the author's intention to ‘contain the customs of the 1930s and 1950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two space experiences of “Park Jeok-gol” and “Hyeonjeo-dong” may have influenced the author’s consciousness about “middle(中)”. Based on the narrative of confrontational space, the main text divided the meaning of “middle” into “horizontal(middle)” and “vertical(middle)”. It was confirmed that ‘Park Jeok-gol’ was shaped into a space of equality and ideal “middle(中)”, while ‘Hyeonjeo-dong’ was shaped into a space of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As such, ‘Park Jeok-gol’ and ‘Hyeonjeo-dong’ the two spatial experiences affect the formation of My ‘sense of economy’. And later, it creates a dual consciousness of “middle(中)” with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Thus, the “Park Jeok-gol” shaped as a “horizontal economic community”, reflects the author's alternative point of views of wrong capitalism.

Key words: Park Wan-seo, Who ate all That many Sing-A, Park Jeok-Gol, Hyeonjeo-dong, Seoul, Gae-sung[開城], Middle[中], equal economic community, equality, alienation, discrimination,

Korean War, dual consciousness, capitalism

투 고 일 : 2020년 1월 31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